

관계인구 늘리기에 나선 도시들

충청남도 관광진흥과 국내관광팀
2022.10.12.

강원도 관광마케팅과
2022.10.13.

전라남도 정책기획관
2022.11.8.

충청남도, 워케이션 충남 구축을 위한 워크숍 진행

충청남도는 '휴양지에서 일하는 워케이션 충남 구축을 위한 도·시·군·관광재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보편화된 재택근무와 프리랜서 증가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워케이션은 일·휴식·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삶의 형태로, 충청남도는 민선 8기 도정 과제로 이를 추진 중이다.

도와 보령·서산·부여·태안 등 4개 시·군 및 충남관광재단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은 추진상황 보고, 운영사례 발표,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관광재단과 시·군의 사업 구상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운영 방향을 모색하였다.

도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 시 반영할 방침이다.

강원도, '2022 강원 워케이션 데이' 개최

강원도는 10월 13일 강원 워케이션 설명회인 '2022 강원 워케이션 데이'를 개최하였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집과 사무실이 아닌 휴가지에서 업무와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지역 체류형 근무제도'를 뜻한다. 기업에서는 업무 능력 향상과 유능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고, 지역에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주목받고 있다.

강원도는 이번 행사에서 7개 기업과 강원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도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임직원들이 편리하게 워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 관광사업체, 지자체 간 B2B 설명회도 진행되었다.

전라남도, 폐교를 체류형 플랫폼 '곡성 스테이션 1928'로 새 단장

전라남도가 옛 오곡초등학교 일원에서 '곡성 스테이션 1928' 착공식을 열고, 조성을 본격화한다. 곡성 스테이션 1928은 폐교가 된 오곡초등학교와 주변 부지에 청년 은퇴자 귀촌인을 곡성으로 유치하기 위한 체류형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2만 1,505㎡의 부지에 건축 2,268㎡ 규모로 건축학교, 숲놀이학교, 아토피치유학교, 청춘작당(100일간 곡성 살기) 등 교육·체험·거주·커뮤니티가 공존하는 거점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2023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오곡초등학교 일원(3만 5,707㎡)을 지역 활성화 특화 단지로 조성하여 지역의 꿈과 희망인 가족 또는 청년 등이 곡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곡성스테이션 1928 조성 계획

출처: 전라남도 (2022),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곡성서 첫 삽, 11월 8일 보도자료.